

“1차의료 접근성 제고...다학제로 질병 예방·악화 방지”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 최종보고회

북구, 옛 선별진료소에 지원센터 신설
주치의-보건소-수혜 주민 연결 체계
복지부 ‘수가’ 확정하면 의료진 모집

광주 북구가 다음 해 본격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최종 실행 방안이 나왔다. 다만,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의료계의 참여를 견인할 ‘수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적절한 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북구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문인 북구청장과 북구의원, 지역 의사·간호사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와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보고를 맡은 임종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난 8월 중간보고에 이어 주치의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회적 합의’와 ‘인프라 구축’을 다시 강조하며 실행 방안과 이에 따른 조직



광주 북구는 지난 17일 오후 4시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국민 주치의 시범사업 실행 방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문인 북구청장과 북구의원, 지역 의사·간호사회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와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협력 체계를 제시했다.

실행 방안의 주요 골자는 ‘1차의료 지원센터’를 통한 다학제 서비스 제공이다.

다학제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해 환자에 대해 최적의 진단을 내리고 함께 치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 대다수가 1인 진료 형태이다 보니 이를 직접 운영하기엔 한계

가 있다는 게 임 교수의 진단이다.

이에 임 교수는 행정 기관에서 지원센터를 두고 ▲인력 지원·연계 ▲의뢰·회송 조정 ▲정보 시스템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며 다학제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직 협력 체계도 지원센터를 한 축으로 그려졌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주치의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수혜 주민 등을 연결하며 원활한

‘10대 서비스’ 제공을 돕는다.

북구는 이 같은 역할을 할 지원센터를 보건소 인근 옛 선별진료소에 두고 올해 연말까지 가동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임종환 교수는 “전국민 주치의제는 주민들의 1차의료 접근성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첫걸음”이라며 “북구의 시범사업이 잘 정착할 경우 다른 지역

으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의 좌장은 홍승권 한국일차의료보건의학회 회장이 맡았으며 박성배 일산병원 교수,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북구지회장, 조명숙 전 동강대학교 간호과 교수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주치의제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박성배 교수는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행위별 수가의 과다, 인당정액은 과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혼합형 지불제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을 위해 공급자에 게 비율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지회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의사들의 참여”라며 “주치의제를 통해 2차의료기관으로 온 환자에 대한 치료 인센티브 등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적절한 수가 산정을 위한 논의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료진 등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청소년 등 총 1만2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다음 해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광주·전남청 ‘관리 미제사건’ 매년 증가

2020년 14만1천202건·10만739건

작년 15만9천325건·12만1천838건

한병도 의원 “등록 적정성 점검 필요”

광주·전남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관리 미제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광주경찰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16만3천2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4만1천202건보다 15.6% 늘어난 수치로, ▲2021년 14만4천566건 ▲2022년 14만8천452건 ▲2023년 15만3천411건 ▲2024년 15만9천325건 등 꾸준히 증가했다.

전남경찰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2020년 10만739건에서 올해 8월 12만5천337건으로 24.4%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0만5천468건 ▲2022년 11만1천87건 ▲2023년 11만6천705건 ▲2024년

12만1천838건 등 지속 증가했다.

관리 미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뜻한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36만511건에서 올해 8월 46만2천904건으로 늘어 6년 새 9만7천333건(26.6%) 증가했다. 시·도별 증가율은 세종(103.5%)이 가장 높았으며, 인천(36.1%), 전북(31.6%), 충남(30.4%), 경기남부(30.3%), 부산(28.3%), 경기북부(28.2%), 경남(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올해 8월 기준 전국 관리 미제 사건 가운데 ▲20년 이상 49만5천18건(10.7%) ▲15년 이상 122만6천462건(26.5%) ▲10년 이상 117만48건(2.53%) ▲5년 이상 72만2천180건(15.6%) ▲3년 이상 34만8천338건(7.5%) ▲3년 미만 67만888건(1.45%)으로, 전체의 약 62.5%가 10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 미제 사건의 상당수는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수사 현장의 부담을 덜면 서도 장기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

록 시·도경찰청별 전수조사와 등록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 중학교에 폭발물” 또 허위 신고
119에 문자...학생 수백명 대피 소동

광주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19분께 ‘남구 주월동 A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119에 문자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과 경찰은 수백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긴급 대피시킨 후 학교 내외를 정밀 수색했으나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중학교는 지난 13일 광주 4개 학교에 이메일로 폭발 협박이 들어온 곳 중 하나다. 확인 결과 모두 허위 신고였다.

경찰은 이번 문자 신고가 기존 협박 메일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주성학 기자

캄보디아서 연락두절 광주 20대 신변 확인

광산경찰, 범죄 피해 여부 조사 예정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던 20대가 현지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며 신변이 확인됐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광산구 거주민 A(20대)씨의 소재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을 통해 파악됐다. A씨는 현지 대사관을 방문해 가족과 통화했으며, 귀국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돈을 벌어 오겠다”며 태국으로 출국한 뒤 8월10일 가족과의 통화 중

“살려달라”는 말을 남긴 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납치 등 범죄 여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실종 신고 직후 외교부에 A씨의 ‘재외국민 체류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행적을 추적하던 중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일대에서 인터넷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A씨가 직접 현지 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소재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귀국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출국 경위와 행적, 범죄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육근 기자

‘가정사 문제’ 가족 지인 살해한 40대 체포

가정사 문제로 가족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광산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가족의 지인인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으로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육근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